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7.5(금) ~ 2024.7.11(목)

제공일시 2024 07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7.5(금) ~ 2024.7.11(목)

제공일시 2024 07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바이든, '원자력 발전법' 서명... 탈탄소 촉진·일자리 기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당적 지지를 받은 미국의 '원자력 발전법(ADVANCE Act)'에 9일(현지시간) 서명함
- 해당 법안의 주요 목표는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산업 강화로 원자력 발전소의 승인 및 건설 절차 간소화가 핵심임
- 재정 지원 및 세금 혜택 등도 마련해 새로운 원자로의 배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음
- 민주당은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여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촉진을, 공화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기대함

(이데일리 2024.7.10) 김윤지 기자

2. 유럽연합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협상 가능성, 친환경 목표 달성 대안 부족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수입관세 인상 정책과 관련해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중국 정부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며 여지를 남김
-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비롯한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미 유럽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EU 관계자들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가 시장 불균형에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함

(비즈니스포스트 2024.7.7) 김유원 기자

3. 퀸즐랜드주, 재생에너지 전환에 23조7천억원 투자

- 호주 퀸즐랜드주는 2024/2025 회계연도 예산 중 260억호주달러(약 23조7000억원)를 양수 발전 및 송전 계획을 포함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 현 노동당 주정부는 '퀸즐랜드 에너지 및 일자리 계획(Queensland Energy and Jobs Plan)'의 일환으로 향후 4년간 석탄 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집중할 계획임
- 퀸즐랜드주는 2035년까지 국영 전력 회사의 석탄 화력발전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4.7.8) 김진영 기자

4. 印, 전기차 지원정책 손본다... "테슬라 약속 불발 영향"

- 인도가 전기차 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손볼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인도 투자 계획을 철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규 투자만 지원하기로 했던 것에서 기존 투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가 보도함
- 한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차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함
- 테슬라의 인도 투자 철회 이유는 전기차 판매 부진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함

(뉴스핌 2024.7.8) 홍우림 기자

1. 배터리 탈거전 성능평가 도입…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배터리협회, 정부 육성안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촉진” 기대

-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거 전 배터리 성능 평가를 도입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안’ 입법도 연내 추진함
-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함
-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됨
- 한국배터리산업협회(배터리협회)는 정부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힘
- 배터리협회는 이번 사용후 배터리 육성안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함

(연합뉴스 2024.7.10) 박재현, 박원희 기자
(CEO스코어데일리 2024.7.10) 박대한 기자

2. 한미 환경협력위원회·환경협의회 개최… 기후변화 대응 등 논의

- 한국과 미국이 오는 11일 서울에서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와 환경협의회(EAC)를 각각 열어 환경 협력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8일 밝힘
- 이번 ECC 회의에서 양측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 변화 대응, 플라스틱, 대기질, 물 관리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또한 기존에 추진된 주요 협력사업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신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EAC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협 의체에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함

(연합뉴스 2024.7.8) 김지연 기자

3. 인프라·원전·방산 ‘전략수주’ 총력전… 5년간 85조 푼다 [해외수주 전방위 지원]

- 정부가 해외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 수주에 오는 2028년까지 85조원을 투입함. 아울러, 원전 전·후방 산업 등 초대형 수주 산업에 대한 금리 우대도 강화함
-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 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확대된 법정자본금을 기반으로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수주에 올해 15조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85조원을 지원할 예정임
- 향후 5년간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지원 목표도 45조원에서 50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지원 신설, 서류 간소화 등 전방위적 지원도 확대함

(파이낸셜뉴스 2024.7.4) 이보미 기자

4. 상장사 임원, 대규모 주식 거래시 최소 30일전 의무 공시

-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함
-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됨. 함께 입법예고된 하위 규정 2개도 같은 날에 시행될 예정임

(연합뉴스 2024.7.9) 임수정 기자

1. 반도체 부활 노리는 日… 소니 등 주요 기업 2029년까지 43조원 투자

- 소니그룹과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 주요 기업이 인공지능(AI)이나 탈탄소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 확대를 겨냥해 2029년까지 5조엔(약 43조원) 규모로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기로 함
-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소니그룹, 미쓰비시전기, 롬, 도시바, 키옥시아홀딩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라피더스, 후지전기 등 8개 회사가 확정된 2021~2029년 9년간 설비투자 계획을 정리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힘
- 소니그룹은 스마트폰 카메라, 자율주행 등에 쓰이는 반도체 화상 센서 증산 등을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조6000억엔(약 13조7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음
- 도시바와 롬은 시용 데이터센터나 전기차 등의 시장 확대를 겨냥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전력 반도체 증산에 3800억엔(약 3조2680억원)을 투입함
- 미쓰비시전기는 구마모토현에 1000억엔(약 8600억원)을 들여 새로운 공장을 세우기로 했음

(서울신문 2024.7.9) 김진아 기자

2. 마이크로소프트 옥시덴탈 산하 탄소 포집 기업에서 배출권 구매, 50만 톤 규모

- 마이크로소프트(MS)가 대형 석유화학업체 옥시덴탈 계열 탄소 포집 기업에서 대량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함
-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MS가 옥시덴탈 페트로리움 산하 원포인트파이브로부터 배출권 50만 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함
- 옥시덴탈은 지난해 4월 원포인트파이브와 함께 미국 텍사스주 노트리스에 직접 포집 플랜트 건설을 시작함
- 완공은 2025년 중반을 목표로 하며, 포집 규모는 연간 50만 톤으로 시작해 최대 100만 톤까지 늘어남

(비즈니스포스트 2024.7.10) 손영호 기자

3. 아르셀로미탈, CO2 재활용 기술 시험으로 철강 탈탄소화 박차

- 아르셀로미탈이 미쓰비시중공업(MHI), 기후 기술 기업 D-CRBN과 함께 벨기에 젠트 공장에서 혁신적인 이산화탄소(CO2) 재활용 기술 시험 개발에 나섬
- 이 기술은 제철 과정에서 포집된 CO2를 철강 생산에 사용 가능한 일산화탄소(CO)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시험은 MHI의 탄소 포집 기술(Advanced KM CDR Process™)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의 확장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7.9) 김진영 기자

4. 중지리, 2026년 초까지 韓 고급 전기차 시장 진출 계획

- 중국 업체 지리가 2026년 초까지 한국 고급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지리 측은 블룸버그통신의 질의에 지리 계열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가 내년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상품 판매를 위한 전시장을 열고, 2026년 1분기에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함
-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을 모델은 한번 충전 시 최대 6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지커001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음

(연합뉴스 2024.7.7) 차병섭 기자

5. 독일, 유럽 최초로 중국산 풍력터빈 설치 이례적인 계약

-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렉스카라가 유럽 최초로 독일에 중국산 풍력터빈 16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유렉티브, 로이터통신, 닷케아시아가 3일(현지시각) 보도함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4월에는 중국산 풍력터빈의 수입을 금지하며 견제에 나선 유럽 최대 풍력발전 시장인 독일에 풍력터빈이 설치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임
- 독일은 지금까지 중국산 풍력터빈의 수입을 회피해왔음

(임팩트는 2024.7.5) 홍명표 기자

1. SK온 전기차 배터리 '3D 프린터'로 제조? 기술 보유 미국업체와 개발 협약

- SK온이 3차원(3D) 프린터로 배터리를 제조하는 미국 기업인 사쿠와 기술 개발 협약을 맺음
- 9일 사쿠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의 카비안(Kavian) 플랫폼을 활용해서 SK온과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 내용의 공동 개발 계약(JDA)을 체결했다고 밝힘
- 사쿠는 3D 프린터로 건식 공정 배터리를 만들면 기존 방식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해 생산 비용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함

(비즈니스포스트 2024.7.9.) 이근호 기자

2. 두산에너지빌리티, 발전소용 수소전소 터빈 도전

- 가스 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책과제를 통해 발전용량 100MW(메가와트)급 수소전소 터빈 실증에 도전함
- 9일 발전-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주관하는 '중형급 유연발전용 수소전소 가스 터빈 기반 발전시스템 실증사업'을 신청함
- 이 사업은 신규 연구개발 과제로, 에기평은 이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임

(매일경제 2024.7.9) 최현재 기자

3. LS전선, 美 서부에 1천억원 해저케이블 공급

- LS전선이 캘리포니아주에 해저케이블을 공급하며 미국 서부지역에 진출함
- LS전선은 최근 미국 송전망 운영사 LS파워그리드 캘리포니아와 1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
- LS전선은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 케이블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세크라멘토강에 설치돼 오리건주 등 서북부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전력을 송전하는 데 사용됨

(여성소비자신문 2024.7.9) 한지안 기자

4. 이 보릿고개에 '1조원 잭팟'... 삼성SDI, 중국 독무대서 진검승부 예고

- 삼성SDI가 미국 최대 전력기업인 넥스트에라에너지에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납품을 추진함. 1조원 수준의 대규모 계약이 기대됨
-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넥스트에라에너지와 6.3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 협상을 진행 중임. 막바지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계약 금액은 1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짐. 전기차 업계가 캐즘(Chasm)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ESS 배터리의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모양새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임

(머니투데이 2024.7.4) 최경민 기자

5. "기름냄새 났 떴돈 벌겠네"... 세계 3위 제치고 '사막질주 전기차' 올라타는 신영

-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신영이 사우디아라비아 최초 전기차 제조업체인 '시어(Ceer)'의 부품 공급자로 최종 선정됨
- 8일 신영은 시어가 만드는 전기차 차체를 구성하는 금형과 지그를 사우디 현지서 개발해 양산하는 내용을 담은 공급 계약서를 사우디 국부펀드(PIF) 및 시어와 체결했다고 밝힘
- 신영은 다음달 사우디 중서부 킹압둘라경제도시(KAEC)에 공장을 착공해 오는 2026년 10월부터 총 8개 차종에 필요한 차체 부품을 양산한다는 계획임

(매일경제 2024.7.8) 양연호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7.5(금) ~ 2024.7.11(목)

제공일시 2024 07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중국의 전력망 투자, 6년간 1109조원... 2030년 배터리 저장용량 70배 늘 듯

-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이 녹색 전환을 위해서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6년간 8000억 달러(약 1109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9일(현지시각) 전했다 (임팩트는 2024.7.11) 홍명표 기자
- 이 투자는 중국의 전력망이 석탄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에너지 시스템의 부담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 중국은 재생에너지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임. 그런데 기존의 전력망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올해 첫 4개월 동안 중국은 전력망 프로젝트에 1229억위안(약 23조원)을 투자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수치임. 이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35억달러(약 5조원)와 비교되는 수치임
- 리서치 그룹인 리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중국의 예상 자본 지출은 올해 약 1020억달러(약 141조원)에서 2030년까지 1570억달러(약 217조원)로 증가할 전망임
- 이렇게 중국정부가 거액을 전력망에 쏟아부어도 문제 해결은 아직 멀어 보임
- 지난 1년 동안 중국 5개 성(省)의 100개 이상의 현과 시에서 새로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배전선 연결을 중단했음. 중국의 34개 성급 행정부 중 최소 12개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력망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요구했을 정도로 많은 지역에서 전력망이 한계에 도달했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해서 전력망이 모두 소화하지 못해 버려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임
- 싱크탱크 클라이밋 에너지 파이낸스의 중국 에너지 분석가 쓰양 동은 “현재 지출 수준은 중국의 태양광 및 풍력 신규 용량 추가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 및 전기차에 필요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적으로 가속화돼 2006년 12%에서 2023년 19%로 증가한다”고 지적했음
-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전 세계 송전망 확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10년 미만의 송전선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했음. 여기에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동부와 최대 수요 중심지인 서부와 북부 지방을 연결하는 50만km 이상의 노선이 포함됨
- 쓰양 동은 “가까운 장래에 석탄 사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전력망 구축, 업그레이드 및 현대화를 우선시하고 충분한 배터리 저장 용량을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중국정부는 14억 명의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시장 시스템에 대한 지출을 다시 늘렸음.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2030년에 탄소 배출량 피크를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이중 목표를 세웠음. 이를 달성하려면 전력망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
- 신용평가기관 피치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속도가 전력망 확장 속도를 능가해 단기적으로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 제한이 빈번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 한편, 연구 그룹인 우드 맥켄지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전 세계 풍력발전 용량의 65%, 전 세계 태양광발전 용량의 60%를 차지했음. 또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2030년 중국의 배터리 저장 용량이 2021년 수준보다 7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